

농촌 노인의 사회관계망이 생활서비스 필요도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Social Networks on the Need
for Life Services for the Elderly in Rural Areas

대구대학교 가정복지학과
겸임교수 이 미 영*

Dept. of Family Welfare, Daegu University
Adjunct Professor Lee, Mi Young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논의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social networks used by the rural elderly and to analyze the effects of these social networks on the need for life services. The research subjects were 1,000 people aged 65 years and over living in the rural areas of Korea. Among the total 1,000 respondents, 979 elderly who have children were included in this study.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frequency of contact with friends/neighbors was higher than that of children, whereas the social support of children was higher than that of friends/neighbors(excluding physical support). Second, the rate of use of home services and the elderly welfare center was very low. Promotion, a minimum cost burden, convenient transportation (circulation bus operation, etc.), and the provision of visiting services are examples of ways to be using them much more. Third, the elderly who do not live with their children have a higher need for life services. As well unlike the elderly who live with their children, in the case of the elderly who do not live with their children, the necessity for life services was influenced not only by their children

* 주저자, 교신저자: 이미영(lee-mi-young@daum.net)

but also by the relationship with their friends/neighbors and by home services. This implies that comprehensive social networks are important for the elderly who do not live with their childre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ctivate the social support of the community as well as of children and friends/neighbors.

Key Words : 농촌 노인(rural elderly), 사회관계망(social networks), 생활서비스(life service)

I. 서론

우리가 노년기에 접어들면 노화로 인해 나타나는 외관상의 변화, 신체 구조적인 쇠퇴, 만성질환 발병률의 증가 등과 같은 생물학적 변화, 우울증 경향의 증가, 성역할의 양성화, 내향성 및 수동성의 증가 등과 같은 심리적 변화, 사회적 지위와 역할의 상실과 같은 사회적 변화를 경험한다. 노인들은 이러한 변화로 인하여 의료적 욕구 외에도 일상적 기능 수행의 어려움, 이에 따른 수발문제, 가족관계의 어려움 등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는 포괄적인 욕구상태에 처해 있을 뿐만 아니라, 노인의 생애기간동안 지속적으로 보호와 수발을 요구한다.

전통사회에서는 한 마을에서 자녀들과 함께 평생을 살아가는 대가족 형태이었으며, 이웃 간의 교류도 활발해서 노년기에 나타나는 변화나 욕구들이 별로 문제시 되지 않았다. 하지만 산업화·도시화됨에 따라 핵가족화, 가족원 수의 축소, 맞벌이 가족, 개인주의 등으로 인해 더 이상 노인들의 변화나 욕구에 대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거나 부족하게 되는 현상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가족의 지지가 없는 일부 노인들은 더욱 열악한 상황에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며 복지서비스 개입과 정책수립에 지역사회와 국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노인복지관과 재가복지센터, 보건소 등을 중심으로 생계/소득보장 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가사보조, 식사제공/배달, 생활서

비스, 사회참여/여가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용 경험률은 매우 저조한 편이다. 특히 농어촌 노인이 노인복지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박경숙, 2003; 이미애, 2005; 백학영·윤민석, 2007).

독거노인의 사회적 관계망과 의료기관 서비스 이용 간의 관련성에 대하여 연구한 문성제 외(2017)는 주관적 건강수준이 나쁜 독거노인의 경우 가족 및 이웃과의 왕래빈도가 의료서비스 이용 증감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백옥미(2011)는 노인들이 친목시설 및 단체에 참여할수록 의료서비스 이용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이들 논문은 의료서비스에 국한되어 있기는 하지만, 노인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겪는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 사회관계망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사회관계망과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것이다.

노인들의 변화나 욕구에 대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거나 부족하여도 우리나라의 노인관련서비스가 북유럽 선진국처럼 매우 잘 정비되어 있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으므로 노인의 사회관계망이 유용하게 활용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노인의 자립을 돕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농촌은 도시보다 고령화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노인관련서비스 및 생활서비스는 매우 열악한 실정이기 때문에 노인들이 맺고 있는 사회관계망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관계망에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자녀, 친구/이웃 등이 포함된다. 배

우자는 감정적 후원뿐만 아니라, 위기상황에서의 일차적인 후원자이기도 하다(정경희, 1995). 자녀는 생활 주기의 후반인 노년기에 더욱 중요해지며(Hoyt & Babchuk, 1983), 자녀와의 동거여부도 노인복지서비스 전반의 이용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이가옥·이미진, 2001). 윤현숙(2001)의 연구에서도 부양자가 배우자보다는 자녀인 경우 가정봉사원 서비스에 대한 필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 친구들은 필요한 아이디어와 정보를 제공하며, 가족 외의 집단과의 연계를 통하여 사교에의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친구의 중요성이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정경희, 1995).

1970년대 이후 사회적지지 및 관계망에 관한 연구가 활성화되어 인간의 건강과 안녕에 있어서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박영란·박경순, 2013). 특히 노인들의 사회관계망과 관련한 연구는 노인들이 맺고 있는 사회관계망 자체에 대한 연구, 건강과 삶의 질의 관계를 연구하는 경향이 높은 반면, 노인관련서비스 및 생활서비스 필요도 및 이용의향과 사회관계망을 접목시킨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최근 국내 노인관련서비스 관련 연구들은 노인과 부양자를 대상으로 하여 서비스의 이용 의사나 경험 정도, 그리고 영향요인 파악을 주요 주제로 다루어왔다. 노인관련서비스 및 생활서비스의 이용 의사, 경험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는 성, 연령, 학력, 재정상태 등의 일반적 사항, 자녀동거 노인, 자녀수, 가족/이웃/친구로부터의 사회적지지 빈도 등과 같은 사회관계망이 있었다. 즉 이러한 사회관계망은 생활서비스 필요도 및 이용의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의미한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는 생활서비스 필요도 및 이용의향에 미치는 영향요인 중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의 일부로써 사회관계망을 다루고 있을 뿐, 본인을 둘러싸고 있는 가족, 친구/이웃, 지역 사회 등의 포괄적인 사회관계망을 다루고 있지

않았다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촌 노인들이 맺고 있는 사회관계망을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이웃, 지역사회까지 포괄적으로 파악하고, 이러한 사회관계망이 생활서비스 필요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여 노인들이 맺는 사회관계망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사회관계망을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생활서비스

노인복지서비스는 사회복지서비스의 하위 개념으로 노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소득·의료·보건 서비스 그리고 여가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8). 노인복지서비스는 노인복지정책을 기반으로 노인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신체적 독립을 유지하고 일상생활의 편의와 심리사회적 안녕을 추구하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남기민, 2006). 즉, 노인복지서비스는 노인이 일상생활의 욕구를 충족하고 가족이나 사회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나타나는 노인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인복지 관련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1997년 노인복지법을 개정하고 정부차원에서 노인복지서비스를 지원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어 왔으며, 2006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하였고, 2008년 7월 현재 시행되고 있다. 이와 같이 정부차원에서 제공하는 노인복지서비스의 양과 질이 대폭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노인들의 서비스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박경숙, 2003). 또한 각 노인복지서비스 기관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의 중

류가 다르고 서비스간의 연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노인들은 지역 노인복지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인지하지 못하고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농촌은 도시지역과 비교하면 생활여건이나 보건복지서비스 수준이 양적, 질적으로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경제적, 의료적, 사회적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노인복지서비스는 시설서비스와 재가서비스로 분류할 수 있다. 생활서비스는 장애인, 노인 등의 시설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로서, 시설에서 제공되는 가장 기본적인 프로그램으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행동인 식사, 착의 및 탈의, 목욕, 이동, 배설 등에 대해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개인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자존감을 유지시키는 것이다(정지영·장승재, 2002; 이민아, 2004에서 재인용). 생활서비스의 내용으로 미루어볼 때, 이는 시설서비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서비스의 총칭이라고 할 수 있다. 재가서비스는 시설이 아니라 가정에 있으면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일종의 ‘생활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이미영·조희금·최윤지, 2016).

본 연구는 첫째, 시설이 아닌 자기 집에서 살아가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 둘째, 그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총칭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설서비스뿐만 아니라 재가서비스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용어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총칭하여 ‘생활서비스’라 하고자 한다.

2. 사회관계망

사회관계망이란, 개인의 모든 사회적 대인접촉을 포함하는 것으로 가족, 친구, 친척, 이웃 등 공식적·비공식적 지원들을 포함하는 다양한 관계로 구성되며 일생동안 상호 간 역할에 따른 의무

와 관계의 동적인 변화에 기초를 둔 집단을 말한다(Ell, 1984; 오인근·오영삼·김명일, 2009에서 재인용). 노인의 가족관계망을 분석한 김영범과 박준식(2004)은 노인의 사회관계망은 가족을 넘어서서 친구, 친척, 이웃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자녀와의 별거로 가족관계망이 와해되어 있는 농촌, 어촌 지역에 살고 있는 노인들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고 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노인들 대부분은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의 사적인 관계망 구성원으로부터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빈번히 도움을 받고 있다(최용민·이상주, 2003).

이정화와 한경혜(2003)는 농어촌 노인은 도시 노인에 비해 자녀보다는 친척이나 친구가 가장 자주 만나 빈번히 교류하는 지원망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농사일을 공동으로 하거나 농사일에 협조를 구해야 하는 일이 많고 이주가 잦지 않아 이웃과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왔다는 농촌지역사회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김수현·강현정·김윤정, 2008).

노년기는 은퇴, 배우자 또는 지인의 사망 등으로 사회관계망의 규모가 이전 시기보다 현저히 축소되는 한편, 돌봄의 필요성에 의해 노인과 사회관계망의 관련성이 커지는 시기이기도 하다(박영란·박경순, 2013; 宮本太郎 編, 2014). 이는 노인이 필요로 하는 각종 생활서비스와 사회관계망이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노인의 사회관계망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사회관계망 자체에 대한 연구(정경희, 1995; 서선희·임희경, 2004), 건강(민기채·이정화, 2008; 최성수·이가람·이성민, 2008; 오인근·오영삼·김명일, 2009; 김동배·유병선, 2013; 임소영·강민아·조성일, 2013; 장영은·김신열, 2014; 강은나·김혜진·정병오, 2015)과 삶의 질(김영범·박준식, 2004; 김수현·강현정·김윤정, 2008; 정순돌·문진영·김성원, 2010; 석재은·장은진, 2016)의 관계를 연구한 것이 대부분

이었으며, 노인관련서비스 및 생활서비스 필요도나 이용의향을 사회관계망에 접목시킨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살펴볼 사회관계망과 생활서비스 관계 규명은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3. 사회관계망과 생활서비스

생활서비스라는 용어는 본 연구에서의 조작적 정의에 해당하므로 본 장에서는 노인관련 서비스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노인관련 서비스와 사회관계망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다룬 선행연구는 주관적 건강수준에 따라서 독거노인의 사회관계망과 의료기관 서비스 이용 관계를 규명한 문성제 외(2017)가 유일하다. 연구결과, 독거노인들의 사회관계망(가족 및 이웃과의 왕래빈도)이 주관적 건강수준이 나쁜 독거노인들의 의료기관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주었으며, 친목시설 및 단체에 참여한 독거노인들의 사회적 관계망이 확대될수록 의료기관 이용횟수가 증가하는 것을 규명하였다. 일반적으로 노인들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이 많으며 건강에 관심이 가장 많으며, 의료시설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노인들은 의료시설 서비스만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의료시설 서비스뿐만 아니라 복지관, 문화센터 등의 문화여가 서비스, 식사제공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들을 이용하고 있다. 이 연구의 한계점은 노인관련 서비스를 전반적으로 다룬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 서비스만을 중점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관계망과 노인관련 서비스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는 문성제 외(2017) 이외에는 전무한 실정이며,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노인관련 서비스들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일반적 특성 및 가족이나 친구/이웃을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이들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반적 특성 중 생활서비스 필요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성별(박미석, 2005), 연령(Kraut, 1983; Brunette & Mui, 1995; 이가옥·이미진, 2001; 박경숙, 2003; Ron, 2009), 학력(Kraut, 1983; 이가옥·이미진, 2001; 이재모·이신영, 2006; 백학영·윤민석, 2007; Ron, 2009), 소득(Kraut, 1983; Logan & Spitze, 1994; 이혜원, 1995; 이가옥·이미진, 2001; Ron, 2009) 등으로 나타났다.

이혜원(1995), Brunette & Mui(1995), 백학영과 윤민석(2007)은 배우자는 노인이 가족으로부터 수발을 받을 수 있는 인적 자원으로, 실제 배우자와 사는 노인에 비해 혼자 사는 노인이 복지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조성희(2003), 박경숙(2003), 이인정(2004)도 홀로 거주하는 노인의 경우 재가복지서비스 이용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이재모와 이신영(2006)은 단기보호를 제외한 가정봉사원, 주간보호, 방문간호서비스의 경우 배우자가 있는 노인, 자녀가 없는 노인이 이용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이들 연구와는 반대로 이가옥과 이미진(2001)은 노인을 대상으로 가정봉사원, 단기보호, 주간보호서비스의 이용의향을 연구하면서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 서비스의 이용가능성이 높다고 하였으며, 강유진과 강효진(2005)도 자녀 수가 많을수록 복지서비스 이용가능성이 높다는 유사한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Ron(2009)는 이스라엘의 여성 독거노인만을 대상으로 건강과 복지서비스의 수요를 살펴보았는데, 가족, 이웃, 친구로부터의 사회적지지 빈도가 낮은 집단은 건강관련 서비스 수요가 높고, 사회적지지의 질(만족도)을 낮게 인식한 집단은 복지서비스 수요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뿐만 아니라 가족관계, 친구/이웃관계는 생활서비스 필요도에 미치는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는 이러한 가족관계와 친구/이웃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연구가 없었으며, 지역사회의 공식적 사회관계망을 간과했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또 가족관계, 친구/이웃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문성제 외(2017)는 의료관련 서비스에만 치중하였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의료(건강)관련 서비스뿐만 아니라 노인들의 일상생활 전반에 필요한 서비스를 포괄하였으며, 생활서비스 필요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비공식적 사회관계망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공식적 사회관계망도 포함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농촌 노인들이 맺고 있는 사회관계망을 파악하고, 사회관계망이 생활서비스 필요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농촌 노인들의 사회관계망(가족, 친구/이웃, 지역사회)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농촌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서비스는 무엇이며, 생활서비스 필요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무엇인가?

2. 자료수집 및 연구대상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전국(제주도 포함) 농촌 지역 거주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 1,0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직접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2010년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지역, 성,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3단 층화무작위추출을 사용하였고, 농촌 지역의 특성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지역 규모, 읍면, 행정리별 표본을 추출하였다. 설문조

사는 2013년 6월13일부터 7월12일까지 약 30일에 걸쳐 실시되었다. 조사대상자 1,000명 중 자녀가 있는 979명을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3. 변수정의 및 측정방법

1) 종속변수: 생활서비스 필요도

생활서비스 필요도는 농촌 노인들이 생활하면서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조사한 것으로 질문내용은 건강관리 서비스, 문화여가 서비스, 일상활동 도우미 서비스, 정보화교육, 이미용 서비스, 이동목욕차량 서비스, 외출동행 및 병원 방문시 차량지원서비스, 복지용구 대여서비스, 노인 비상호출전화서비스, 노인상담전화서비스 등 총 1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점 리커트 척도(1=필요하다, 2=그저 그렇다, 3=필요하지 않다)로 되어 있는데, 해석의 편의를 위하여 역코딩하였다. 해석은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전체 문항의 Cronbach's $\alpha=0.900$ 로 전체 문항의 신뢰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 노인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10종류 생활서비스의 필요도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유사한 내용의 서비스를 범주화하였다. 건강관리, 이·미용, 이동목욕차량 서비스를 위생/건강관련 서비스, 문화여가와 정보화교육을 문화여가관련 서비스, 일상활동 도우미, 외출동행 및 차량지원, 복지용구 대여를 일상생활관련 서비스, 비상호출전화와 상담전화를 상담관련 서비스 총 4가지로 분류하였으며, 이들 각각의 신뢰도는 .779, .698, .838, .862로 전체 문항의 신뢰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사회관계망으로 구분하였으며, 분석에 사용된 변수의 정의와 측정방법은 <표 1>과 같다.

〈표 1〉 변수정의 및 측정방법

| 변수 | | 정의 및 측정방법 |
|--------|--|---|
| 종속변수 | 생활서비스 필요도 | 건강관리 등 총 10문항(각 문항은 3점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서비스가 필요함을 의미함 |
| 일반적 특성 | 성별 연령 학력 농가여부 월생활비 충분성 | 0=남 1=여 만 연령(세) 1=무학 2=국졸 3=중졸 4=고졸 5=대졸 이상 0=비농가 1=농가 월생활비에 대하여 느끼는 충분성 정도 1=매우 부족 2=부족 3=보통 4=충분 5=매우 충분 |
| 사회 관계망 | 배우자 유무 동거자녀 유무 연락(왕래)빈도 사회적지지 경로당, 재가서비스, 노인복지관 이용경험 여부 | 0=배우자 없음 1=배우자 있음 0=자녀 비동거 가구 1=자녀 동거 가구 1=연락 거의 하지 않음 2=한달에 1-2번 3=주1번 4=주 2-3번 5=거의 매일 도구적, 신체적, 경제적 지원을 주고받은 종류 수 0=이용경험 없음 1=이용경험 있음 |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변수는 성, 연령, 학력, 농가여부(농사를 짓고 있으면서, 그로 인한 현금소득이 있는 경우를 농가로 정의), 월생활비 충분성이다. 사회관계망 변수는 가족, 친구/이웃, 지역사회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가족은 배우자 유무, 동거자녀 유무, 분가한 자녀와의 연락빈도, 사회적지지를 주고받는 정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며, 친구/이웃은 왕래빈도 및 사회적지지를 주고받는 정도, 지역사회는 경로당, 재가서비스, 노인복지관 이용 경험 여부 등을 살펴보았다. 사회적지지는 청소, 식사준비, 세탁 등의 도구적 지원, 간병, 수발, 병원동행 등의 신체적 지원, 경제적 지원 중 몇 가지 지원을 주고받는지 살펴보았다.

적 특성과 사회관계망, 생활서비스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활서비스 필요도와와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t-test와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증방법으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사용하였다. 셋째, 측정도구의 신뢰도 값을 파악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값을 구하였다. 넷째,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Person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생활서비스 필요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SPSS ver. 18.0(SPSS Inc., Chicago, IL, USA)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통계적 분석기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자의 일반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사회관계망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사회관계망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성별은 남성 39.1%, 여성 60.9%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약1.5배 정도 많

았다. 연령은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57.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75세 이상 85세 미만 35.1%, 85세 이상 고령자 7.9%로, 전체 조사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74.76세로 나타났다. 학력수준은 무학 30.8%, 초등학교 중퇴/졸업 51.0%, 중학교 중퇴/졸업 이상 18.2%로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저학력자가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여 전반적으로 학력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농가여부의 경우, 농사를 짓고 있으며 그로부터 현금소득이 있는 노인은 40.7%, 그렇지 않은 노인은 59.3%로 비농가의 비율이 더 높았다. 월 생활비 충분성은 부족하다가 45.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보통이 37.3%, 충분하다는 17.7%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배우자의 경우, 유배우자 59.3%, 무배우자 40.7%로 유배우자가 무배우자보다 많았다. 자녀동거 유무는 자녀비동거 가구 78.3%, 자녀동거 가구 21.7%로 자녀비동거 가구가 자녀동거 가구의 3.5배 이상으로 높았는데, 이는 자녀동거 가구가 28.4%로 나타난 2014년 노인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와 유사하였다. 자녀동거 가구의 경우, 자녀 동거 이유는 혼자 가사노동을 하기 힘들어서가 29.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져서 18.5%, 몸이 안 좋아서 돌봐줄 사람이 필요해서 16.9%, 손자녀 양육에 도움을 주려고 15.4% 순으로 나타났다. 자녀와 함께 사는 이유는 노인들이 자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보다 노인들의 신체적, 경제적 이유로 같이 사는 비율이 높았다. 자녀비동거 가구의 경우는 65.2%가 자녀의 직장이나 학업관계로 자녀가 타지역에 있어서 동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동거, 비동거 이유에서 기타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매우 다양한 응답이 나와 분류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분류를 하지 않고 기타로 다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분가한 자녀와의 연락빈도는 주1번이 27.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달에 1-2번 26.5%, 주

2-3번 23.0%, 거의 매일 14.9% 순이었다. 연락을 거의 하지 않는 비율도 6.6%로 나타났다. 자녀의 사회적지지 정도를 살펴보면, 경제적지지를 받고 있는 비율이 77.8%로 다른 사회적지지보다 높았으며, 도구적지지 51.5%, 신체적지지 43.5%로 나타났다. 반면, 노인들이 자녀들에게 주는 사회적지지는 경제적지지 37.4%, 도구적지지 15.6%, 신체적지지 6.3%로 나타났다.

친구/이웃과의 왕래빈도는 거의 매일이 58.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주2-3번 23.7%, 주1번 8.2%, 1달에 1-2번 3.6% 순이었다. 연락을 거의 하지 않는 비율도 6.0%로 나타났다.

친구/이웃의 사회적지지 정도를 살펴보면, 도구적지지를 받고 있는 비율이 10.7%로 다른 사회적지지보다 높았으며, 경제적지지 8.5%, 신체적지지 7.2%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인들이 친구/이웃들에게 주는 사회적지지는 경제적지지 16.0%, 도구적지지 12.3%, 신체적지지 11.1%로 나타났다.

지역사회에 있는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는 비율은 53.0%로 과반수 이상이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재가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6.2%, 노인복지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12.6%로 경로당보다 매우 저조한 수치로 나타났다.

재가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건강해서’가 32.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비용이 부담되어서’ 20.9%, ‘돌봐주는 가족이 있어서’ 19.7%, ‘있는 줄 몰라서’ 18.7%, ‘이용 자격기준에 맞지 않아서’ 18.1%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교통이 불편해서’가 25.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서’ 16.7%, ‘있는 줄 몰라서’ 16.0%, ‘비용이 부담되어서’ 8.3% 순으로 나타났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사회관계망

| 변수 | 구분 | N(%) | 변수 | 구분 | N(%) | 변수 | 구분 | N(%) |
|-------------|----------|-----------|-----------------|----------------|-----------|--------------------|-----------|-----------|
| 성별 | 남성 | 383(39.1) | 배우자 유무 | 무배우자 | 398(40.7) | 경로당 이용 여부 | 경험 없음 | 460(47.0) |
| | 여성 | 596(60.9) | | 유배우자 | 581(59.3) | | 경험 있음 | 519(53.0) |
| 연령 | 65~74세 | 558(57.0) | 자녀 동거 유무 | 자녀비동거 가구 | 767(78.3) | 재가 서비스 이용 여부 | 경험 없음 | 918(93.8) |
| | 75~84세 | 344(35.1) | | 자녀동거 가구 | 212(21.7) | | 경험 있음 | 61(6.2) |
| | 85세 이상 | 77(7.9) | | | | | | |
| | 평균(세) | 74.76세 | | | | | | |
| 학력 | 무학 | 302(30.8) | 자녀 동거 이유 | 가사노동 하기 힘들어서 | 38(29.2) | 재가 서비스 이용 하지 않는 이유 | 건강해서 | 300(32.7) |
| | 초등학교 | 499(51.0) | |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서 | 24(18.5) | | 비용 부담 | 192(20.9) |
| | 중학교 이상 | 178(18.2) | | 몸이 안 좋아서 | 22(16.9) | 자격기준 부적합 | 166(18.1) | |
| | | | | 손자녀 양육 | 20(15.4) | 복잡한 이용절차 | 55(6.0) | |
| | | | | 기타 | 26(20.0) | 있는 줄 몰라서 | 172(18.7) | |
| | | | | | | 돌봐줄 가족 있음 | 181(19.7) | |
| 농가 여부 | 농가 | 398(40.7) | 자녀 비동거 이유 | 자녀가 타지역에 있어서 | 499(65.2) | 노인 복지관 이용 여부 | 경험 없음 | 856(87.4) |
| | 비농가 | 581(59.3) | | 떠나기 싫어서 | 163(21.3) | | 경험 있음 | 123(12.6) |
| | | | | 자녀의 좋지 않은 경제형편 | 37(4.8) | | | |
| | | | | 기타 | 66(8.7) | | | |
| 월 생활비 충분성 | 부족하다 | 441(45.0) | 분가 자녀와의 연락 빈도 | 연락 거의 없음 | 65(6.6) | 노인 복지관 이용 하지 않는 이유 | 교통 불편 | 220(25.9) |
| | 보통이다 | 365(37.3) | | 1달에 1-2번 | 259(26.5) | | 비용 부담 | 70(8.3) |
| | 충분하다 | 173(17.7) | | 주1번 | 265(27.1) | 좋지 않은 건강 | 142(16.7) | |
| | | | | 주2-3번 | 225(23.0) | 있는 줄 몰라서 | 136(16.0) | |
| | | | | 거의 매일 | 146(14.9) | 나이가 많아서 | 68(8.0) | |
| | | | | | | 시간이 없어서 | 58(6.8) | |
| | | | | | | 기타 | 154(18.3) | |
| 친구/이웃 왕래 빈도 | 연락 거의 없음 | 59(6.0) | 자녀의 사회적 지지 (받음) | 도구적 지지 | 504(51.5) | 친구/이웃의 사회적 지지 (받음) | 도구적 지지 | 105(10.7) |
| | 1달에 1-2번 | 35(3.6) | | 신체적 지지 | 426(43.5) | | 신체적 지지 | 70(7.2) |
| | 주1번 | 80(8.2) | | 경제적 지지 | 762(77.8) | 경제적 지지 | 83(8.5) | |
| | 주2-3번 | 232(23.7) | | | | | | |
| | 거의 매일 | 573(58.5) | | | | | | |
| | | | 자녀의 사회적 지지 (줌) | 도구적 지지 | 153(15.6) | 친구/이웃의 사회적 지지 (줌) | 도구적 지지 | 120(12.3) |
| | | | | 신체적 지지 | 62(6.3) | | 신체적 지지 | 109(11.1) |
| | | | | 경제적 지지 | 366(37.4) | 경제적 지지 | 157(16.0) | |

2. 농촌 노인들의 생활서비스 필요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1) 농촌 노인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활서비스 필요도

농촌 노인들의 생활서비스 필요도는 평균 18.54 점(총점 30점)으로 필요하지 않다 12.3%, 그저 그렇다 47.4%, 필요하다 40.3%로 약 40%의 농촌 노인들이 생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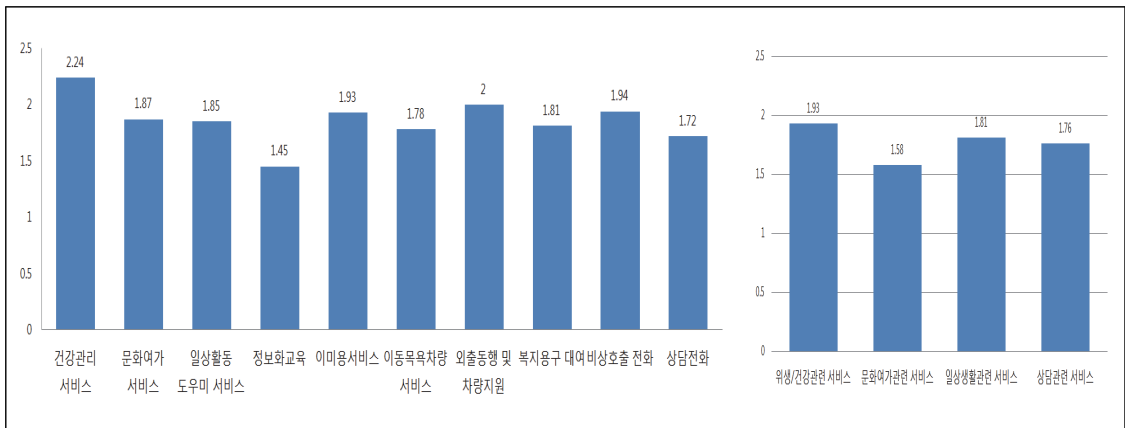
생활서비스 필요도와 관련한 10문항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그림 1참조, 건강관리 서비스(2.24 점) > 외출동행 및 병원 방문시 차량지원 서비스(2.00점) > 노인 비상호출전화 서비스(1.94점) > 이미용 서비스(1.93점) > 문화여가 서비스(1.87점) > 일상활동 도우미 서비스(1.85점) > 복지용구 대여 서비스(1.81점) > 이동목욕차량 서비스(1.78점) > 노인상담전화 서비스(1.72점) > 정보화교육서비스(1.45점) 순이었다. 생활서비스를 분류화하여 살펴보면(그림 1참조), 위생/건강관련 서비스(1.99 점) > 일상생활관련 서비스(1.89점) > 상담관련 서비스(1.83점) > 문화여가관련 서비스(1.66)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2)에 따르면, 노인들은 건강관리 서비스(56.7%)에 관심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일상활동 도우미 서비스(11.5%), 금융·자산관리서비스(6.8%) 순이었으며, 농촌이 도시보다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섬 지역 노인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 요구도를 조사한 김민희와 김성희(2012)의 연구결과에서도 보건의료서비스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노인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농촌, 섬이라는 지역적 특성상 받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표 3>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활서비스 필요도를 나타낸 것으로, 성별, 연령, 학력, 농가여부, 월생활비 충분성 모든 변수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남성보다 여성 집단이, 75세 미만과 85세 이상 집단보다 75~85세 미만 집단이, 초등학교 중퇴/졸업 이상 집단보다 무학력 집단이, 비농가 집단이, 월생활비가 부족한 집단이 생활서비스에 대한 필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위생/건강관련 서비스 필요도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문화여가관련 서비스의 경우, 85세 이상 집단보다 85세 미만 집단이, 학력이 높은 집단이, 월생활비가 충분한 집단보다 부족한 집단에서 서비스에 대한 필요도가 높은 반면, 성별이나 농가여



〈그림 1〉 생활서비스 필요도

(표 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활서비스 필요도 차이 검증

단위: M(SD)

| 변수 | | 위생/건강관련 서비스 | 문화여가 관련 서비스 | 일상생활관련 서비스 | 상담관련 서비스 | 전체 |
|-----------|-------------|--------------|--------------|-------------|--------------|--------------|
| 성별 | 남성(383) | 1.90(.70) | 1.70(.68) | 1.73(.75) | 1.73(.78) | 1.78(.61) |
| | 여성(596) | 2.04(.69) | 1.63(.61) | 1.99(.76) | 1.89(.77) | 1.91(.59) |
| | t | -2.897** | 1.709 | -5.167*** | -3.012** | -3.377** |
| 연령 | 65~74세(558) | 1.91(.70) a | 1.72(.65) b | 1.77(.77) a | 1.75(.78) a | 1.80(.61) a |
| | 75~84세(344) | 2.09(.69) b | 1.61(.62) b | 2.04(.73) b | 1.92(.77) ab | 1.95(.57) b |
| | 85세 이상(77) | 2.00(.70) ab | 1.44(.54) a | 2.06(.78) b | 1.95(.77) b | 1.89(.62) ab |
| | F | 7.314** | 8.259*** | 16.450*** | 5.867** | 6.642** |
| 학력 | 무학(302) | 2.11(.69) b | 1.56(.61) a | 2.13(.74) b | 1.95(.76) b | 1.98(.58) b |
| | 초등학교(499) | 1.95(.69) a | 1.67(.63) b | 1.80(.76) a | 1.78(.78) a | 1.82(.60) a |
| | 중학교 이상(178) | 1.86(.71) a | 1.78(.67) c | 1.73(.75) a | 1.74(.79) a | 1.78(.63) a |
| | F | 8.939*** | 7.248** | 23.653*** | 5.718** | 8.603*** |
| 농가 여부 | 농가(398) | 1.86(.67) | 1.64(.64) | 1.72(.73) | 1.66(.74) | 1.74(.58) |
| | 비농가(581) | 2.07(.70) | 1.67(.64) | 2.00(.77) | 1.94(.79) | 1.94(.60) |
| | t | 4.537*** | .693 | 5.782*** | 5.472*** | 5.357*** |
| 월 생활비 충분성 | 부족하다(441) | 2.17(.64) c | 1.72(.64) b | 2.09(.73) c | 2.04(.78) c | 2.03(.55) c |
| | 보통이다(365) | 1.94(.71) b | 1.64(.63) ab | 1.82(.79) b | 1.75(.76) b | 1.81(.62) b |
| | 충분하다(173) | 1.61(.65) a | 1.54(.64) a | 1.52(.64) a | 1.45(.65) a | 1.54(.54) a |
| | F | 44.761*** | 4.896** | 39.454*** | 41.957*** | 48.024*** |

p<.01, *p<.001

부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일상생활관련 서비스의 경우, 남성보다 여성 집단이, 75세 미만 집단보다 75세 이상 집단이, 초등학교 중퇴/졸업 이상 집단보다 무학력 집단이, 비농가 집단이, 월생활비가 부족한 집단이 서비스에 대한 필요도가 높았다. 상담관련 서비스의 경우, 남성보다 여성 집단이, 75세 미만 집단보다 85세 이상 집단이, 초등학교 중퇴/졸업 이상 집단보다 무학력 집단이, 비농가 집단이, 월생활비가 부족한 집단이 서비스에 대한 필요도가 높았다.

2) 농촌 노인들의 생활서비스 필요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농촌 노인들의 생활서비스 필요도에 미치는 영

향요인을 파악하기 전에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각 변수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다중공선성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각각의 독립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었지만, 다중공선성으로 회귀분석에 왜곡을 줄 만큼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지는 않았다. 또 상관관계와 공선성 진단을 통해 공차한계 값이 .10보다 크고 다중공선성계수 (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도 모두 5.00보다 훨씬 작으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농촌 노인들의 생활서비스 필요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는 성, 연령, 학력, 농가 여부, 월

생활비 충분성 등의 일반적 특성, 배우자 유무, 동거자녀 유무, 분가한 자녀와 친구/이웃의 연락(왕래)빈도, 사회적지지를 주고받는 정도, 경로당, 재가서비스, 노인복지관 이용경험 여부 등의 사회관계망으로 구성하였다. <표 4>는 각 독립변수가 조사대상자의 생활서비스 필요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월생활비 충분성, 동거자녀 유무, 분가한 자녀와의 연락빈도, 자녀에게 준 사회적지지, 친구/이웃의 왕래빈도와 친구/이웃으로부터 받는 사회적지지, 경로당과 재가서비스 이용경험 여부가 생활서비스 필요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분가한 자녀

와의 연락빈도($\beta=-.219, p<.001$)의 영향력이 가장 컸고, 다음으로 친구/이웃으로부터 받는 사회적지지($\beta=.178, p<.001$), 월생활비 충분성($\beta=-.154, p<.001$), 친구/이웃의 왕래빈도($\beta=-.132, p<.001$), 자녀에게 준 사회적지지($\beta=-.115, p<.001$)와 재가서비스 이용경험 여부($\beta=.115, p<.001$), 동거자녀 유무($\beta=-.103, p<.001$), 경로당 이용경험 여부($\beta=.081, p<.01$) 순으로 생활서비스 필요도에 영향을 미쳤다. 농촌 노인들의 생활서비스 필요도에 있어서, 분가한 자녀와 연락빈도가 적을수록, 친구/이웃으로부터 받는 사회적지지가 많을수록, 월생활비가 충분하지 않을수록, 친구/이웃의 왕래빈도가 적을수록, 자녀에게 주는 사회적지지가 적을수록, 재가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을수록, 자

<표 4> 생활서비스 필요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자녀동거유무 포함)

| 변수 | | 전체 | 자녀동거 가구 | 자녀비동거 가구 | |
|---------------------|-----------|------------|----------|-----------|----------|
| | | β | β | β | |
| 일반적 특성 | 성별 | .057 | .115 | .043 | |
| | 연령 | -.034 | -.171* | .014 | |
| | 학력 | -.026 | -.074 | -.023 | |
| | 농가여부 | -.061 | .000 | -.075* | |
| | 월생활비 충분성 | -.154*** | -.218** | -.124*** | |
| 사회 관계망 | 배우자 유무 | .006 | .117 | -.027 | |
| | 자녀 | 동거자녀 유무 | -.103*** | - | - |
| | | 연락빈도 | -.219*** | -.288*** | -.212*** |
| | | 사회적지지(받음) | .023 | -.004 | .077* |
| | | 사회적지지(줌) | -.115*** | -.194** | -.076* |
| | 친구/ 이웃 | 왕래빈도 | -.132*** | -.054 | -.152*** |
| | | 사회적지지(받음) | .178*** | .084 | .164*** |
| | | 사회적지지(줌) | -.041 | .115 | -.080* |
| | 지역 사회 | 경로당 이용여부 | .081** | .080 | .064 |
| | | 재가서비스 이용여부 | .115*** | .147* | .120*** |
| 노인복지관 이용여부 | | .016 | .087 | .000 | |
| R ² | | .240 | .300 | .241 | |
| Adj. R ² | | .228 | .241 | .225 | |
| F | | 18.659*** | 5.079*** | 15.845*** | |

*p<.05, **p<.01, ***p<.001

녀와 동거하지 않을수록, 경로당을 이용한 경험이 있을수록 생활서비스에 대한 필요도가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가옥과 이미진(2001)은 자녀와의 동거여부가 노인복지서비스 전반의 이용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하였으며, 윤현숙(2001)의 연구에서도 배우자보다는 자녀가 부양자인 경우 가정봉사원 서비스에 대한 필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 분석결과에서도 동거자녀 유무, 분가한 자녀와의 연락빈도, 자녀가 주는 사회적지지가 생활서비스 필요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는 자녀와의 관계가 노년기에 특히 중요함을 의미하며, 자녀동거유무가 노인복지서비스 필요도 및 이용의사에 미치는 중요한 변수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동거 유무에 따른 차이를 검증한 비교 연구는 충분치 않았다. 따라서 생활서비스 필요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이 자녀동거 유무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도 분석하였다.

자녀동거 가구의 경우, 연령, 월생활비 충분성의 일반적 특성, 분가한 자녀와의 연락빈도, 자녀에게 준 사회적지지의 자녀관련변수, 재가서비스 이용경험 여부의 지역사회변수가 생활서비스 필요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분가한 자녀와의 연락빈도($\beta=.288, p<.001$)의 영향력이 가장 컸고, 다음으로 월생활비 충분성($\beta=.218, p<.01$), 자녀에게 준 사회적지지($\beta=.194, p<.01$), 연령($\beta=.171, p<.05$), 재가서비스 이용경험 여부($\beta=.147, p<.05$) 순으로 생활서비스 필요도에 영향을 미쳤다. 농촌 노인들의 생활서비스 필요도에 있어서, 분가한 자녀와 연락빈도가 적을수록, 월생활비가 충분하지 않을수록, 자녀에게 준 사회적지지가 적을수록, 나이가 젊을수록, 재가서비스 이용경험이 있을수록 생활서비스에 대한 필요도가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자녀비동거 가구의 경우, 농가 여부와 월생활비 충분성 등의 일반적 특성, 분가한 자녀와 친구/

이웃의 연락(왕래)빈도와 사회적지지, 재가서비스 이용경험 여부가 생활서비스 필요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분가한 자녀와의 연락빈도($\beta=.212, p<.001$)의 영향력이 가장 컸고, 다음으로 친구/이웃으로부터 받은 사회적지지($\beta=.164, p<.001$), 친구/이웃과의 왕래빈도($\beta=.152, p<.001$), 월생활비 충분성($\beta=.124, p<.001$), 재가서비스 이용경험 여부($\beta=.120, p<.001$), 친구/이웃에게 주는 사회적지지($\beta=.080, p<.05$), 자녀에게 받는 사회적지지($\beta=.077, p<.05$), 자녀에게 주는 사회적지지($\beta=.076, p<.05$), 농가 여부($\beta=.075, p<.05$) 순으로 노인복지서비스 필요도에 영향을 미쳤다. 농촌 노인들의 생활서비스 필요도에 있어서, 분가한 자녀와 연락빈도가 적을수록, 친구/이웃으로부터 받은 사회적지지가 많을수록, 친구/이웃과 왕래빈도가 적을수록, 월생활비가 충분하지 않을수록, 재가서비스 이용경험이 있을수록, 친구/이웃에게 주는 사회적지지가 적을수록, 자녀로부터 받는 사회적지지가 많을수록, 자녀에게 주는 사회적지지가 적을수록, 비농가일수록 생활서비스에 대한 필요도가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생활서비스를 분류화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위생/건강관련 서비스의 경우, 분가한 자녀와의 연락빈도($\beta=.209, p<.001$)의 영향력이 가장 컸고, 다음으로 재가서비스 이용경험 여부($\beta=.160, p<.001$), 월생활비 충분성($\beta=.143, p<.001$), 친구/이웃으로부터 받는 사회적지지($\beta=.131, p<.001$), 자녀에게 준 사회적지지($\beta=.099, p<.01$), 친구/이웃에게 준 사회적지지($\beta=.089, p<.01$), 동거자녀 유무($\beta=.083, p<.01$), 친구/이웃의 왕래빈도($\beta=.074, p<.05$) 순으로 위생/건강관련 서비스 필요도에 영향을 미쳤다. 농촌 노인들의 위생/건강관련 서비스 필요도에 있어서, 분가한 자녀와 연락빈도가 적을수록, 재가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을수록, 월생활비가 충분하지 않을수록, 친구/이웃으로부터 받는 사회적지지가 많을

수록, 자녀와 친구/이웃에게 주는 사회적지지가 적을수록, 자녀와 동거하지 않을수록, 친구/이웃의 왕래빈도가 적을수록 위생/건강관련 서비스에 대한 필요도가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문화여가관련 서비스의 경우, 위생/건강관련 서비스와는 달리 연령($\beta=.184, p<.001$)의 영향력이 가장 컸다. 다음으로 분가한 자녀와의 연락빈도($\beta=.130, p<.001$), 경로당 이용경험 여부($\beta=.117, p<.001$), 학력($\beta=.093, p<.05$), 친구/이웃의 왕래빈도($\beta=.073, p<.05$) 순으로 문화여가관련 서비스 필요도에 영향을 미쳤다. 농촌 노인들의 문화여가관련 서비스 필요도에 있어서, 연령이 낮을수록, 분가한 자녀와 연락빈도가 적을수록, 경

로당을 이용한 경험이 있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친구/이웃의 왕래빈도가 적을수록 문화여가관련 서비스에 대한 필요도가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일상생활관련 서비스의 경우, 친구/이웃으로부터 받는 사회적지지($\beta=.206, p<.001$)의 영향력이 가장 컸고, 다음으로 분가한 자녀와의 연락빈도($\beta=.172, p<.001$), 친구/이웃의 왕래빈도($\beta=.133, p<.001$), 월생활비 충분성과 자녀에게 준 사회적지지($\beta=.132, p<.001$), 재가서비스 이용경험 여부($\beta=.116, p<.001$), 동거자녀 유무($\beta=-.109, p<.001$), 성별($\beta=.104, p<.01$), 학력($\beta=-.075, p<.05$) 순으로 일상생활관련 서비스 필요도에 영향을 미쳤다. 농

〈표 5〉 생활서비스 각 유형별 필요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변수 | | 위생/건강관련 서비스 | 문화여가관련 서비스 | 일상생활관련 서비스 | 상담관련 서비스 | |
|---------------------|----------|-------------|------------|------------|-----------|----------|
| | | β | β | β | β | |
| 일반적 특성 | 성별 | .035 | -.041 | .104** | .055 | |
| | 연령 | -.022 | -.184*** | .039 | -.006 | |
| | 학력 | -.049 | .093* | -.075* | -.001 | |
| | 농가여부 | -.036 | -.055 | -.051 | -.065* | |
| | 월생활비 충분성 | -.143*** | -.063 | -.132*** | -.155*** | |
| 사회 관계망 | 배우자 유무 | -.002 | -.032 | .024 | .014 | |
| | 자녀 | 동거자녀 유무 | -.083** | -.058 | -.109*** | -.080** |
| | | 연락빈도 | -.209*** | -.130*** | -.172*** | -.203*** |
| | | 사회적지지(받음) | .027 | -.057 | .032 | .053 |
| | | 사회적지지(줌) | -.099** | -.024 | -.132*** | -.098** |
| | 친구/이웃 | 왕래빈도 | -.074* | -.073* | -.133*** | -.154*** |
| | | 사회적지지(받음) | .131*** | .016 | .206*** | .196*** |
| | | 사회적지지(줌) | -.089** | -.053 | -.037 | .059 |
| | 지역 사회 | 경로당 이용 | .051 | .117*** | .040 | .089** |
| | | 재가서비스 이용 | .160*** | .025 | .116*** | .039 |
| 노인복지관 이용 | | .005 | .029 | .015 | .008 | |
| R ² | | .206 | .106 | .253 | .218 | |
| Adj. R ² | | .193 | .091 | .240 | .204 | |
| F | | 15.306*** | 7.014*** | 19.966*** | 16.403*** | |

*p<.05, **p<.01, ***p<.001

촌 노인들의 일상생활관련 서비스 필요도에 있어서, 친구/이웃으로부터 받는 사회적지지가 많을수록, 분가한 자녀와 연락빈도가 적을수록, 친구/이웃의 왕래빈도가 적을수록, 월생활비가 충분하지 않을수록, 자녀에게 주는 사회적지지가 적을수록, 재가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을수록, 자녀와 동거하지 않을수록, 여성일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일상생활관련 서비스에 대한 필요도가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상담관련 서비스의 경우, 분가한 자녀와의 연락빈도($\beta=.203, p<.001$)의 영향력이 가장 컸고, 다음으로 친구/이웃으로부터 받는 사회적지지($\beta=.196, p<.001$), 월생활비 충분성($\beta=.155, p<.001$), 친구/이웃의 왕래빈도($\beta=.154, p<.001$), 자녀에게 준 사회적지지($\beta=.098, p<.01$), 경로당 이용 경험 여부($\beta=.089, p<.01$), 동거자녀 유무($\beta=.080, p<.01$), 농가여부($\beta=.065, p<.05$) 순으로 상담관련 서비스 필요도에 영향을 미쳤다. 농촌 노인들의 상담관련 서비스 필요도에 있어서, 분가한 자녀와 연락빈도가 적을수록, 친구/이웃으로부터 받는 사회적지지가 많을수록, 월생활비가 충분하지 않을수록, 친구/이웃의 왕래빈도가 적을수록, 자녀에게 주는 사회적지지가 적을수록, 경로당을 이용한 경험이 있을수록, 자녀와 동거하지 않을수록, 비농가일수록 상담관련 서비스에 대한 필요도가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농촌 노인들이 맺고 있는 사회관계망을 파악하고, 어떤 생활서비스를 필요로 하는지, 생활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요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요약·정리하고 이에 따른 논의를 전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 노인들의 가족과 친구/이웃과의 관

계를 살펴보면, 연락빈도는 자녀(거의 매일 14.9%, 1달에 1-2번 26.5%)보다 친구/이웃(거의 매일 58.5%, 1달에 1-2번 3.6%)과 활발한 반면, 사회적지지는 친구/이웃보다 자녀와 주고받는 사회적지지(신체적지지 제외)가 많았다.

농촌의 경우 자녀(거의 매일 26.9%, 한달 1회 19.1%)보다 친구/이웃(거의 매일 70.2%, 한달 1회 5.3%)과 연락(왕래)하는 빈도가 높다고 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의 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한 곳에서 오래 살면서 이웃과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온 농촌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녀보다 친구/이웃과 활발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친구/이웃보다 자녀와 주고받는 사회적지지가 많았다. 이는 노인들이 가장 많이 의존하고 지원을 제공받는 사회적지지 체계는 여전히 가족임을 의미한다(최정아·서병숙, 1992). 현대사회가 핵가족화되어 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혈연관계를 중심으로 지원망이 노인들에게 중요한 지원의 원천이 됨을 보여준 것이다.

둘째, 농촌 노인들의 지역사회관계를 살펴보면,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는 비율은 53.0%로 과반수 이상으로 나타난 반면, 재가서비스와 노인복지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비율(각각 6.2%, 12.6%)은 경로당보다 매우 저조한 수치로 나타났다. 이는 농촌 노인의 경로당 이용률 54.3%, 노인복지관 이용률 7.6%로 나타난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일반적으로 노인들은 고령화와 함께 신체기능이 점차 쇠퇴하고, 사회관계가 변화됨에 따라 노인들의 일상생활은 다른 사람들의 돌봄 및 지원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으며, 그 돌봄 및 지원을 누가 담당할 것인지,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宮本太郎 編, 2014). 예전에는 노인들의 부양을 가족들이 담당해 왔으나, 산업화·도시화로 인한 핵가족 증가로 더 이상 노인들의 부양을

책임질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지역사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경로당, 재가서비스, 노인복지관을 활용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이들의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문제점을 고려하여 지역사회 서비스 이용률을 활성화시킬 방안이 필요하다.

재가서비스와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중 ‘있는 줄 몰라서’가 각각 18.7%, 16.0%, ‘비용 부담’이 각각 20.9%, 8.3%로 재가서비스와 노인복지관에 대한 농촌 노인들의 인지도가 매우 낮았으며,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들에게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또 노인복지관의 경우, ‘교통이 불편해서’ 이용하지 않는 비율이 25.9%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농촌의 불편한 교통상황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재가서비스 및 노인복지관 활용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농촌 노인들에게 홍보를 하고, 비용 부담을 줄이고, 교통편이 불편한 농촌의 실정을 고려하여 순환버스를 운영하여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또 농촌 노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경로당은 노인들이 모여서 담화장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담화장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프로그램(예를 들어, 노인들의 관심도가 가장 높은 건강관련 프로그램, 의사를 초빙한 맞춤형 상담, 노인들이 간단히 따라할 수 있는 치매예방 프로그램을)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농촌 노인들의 생활서비스 필요도는 평균 18.54점(총점 30점)으로 위생/건강관련 서비스(1.99점)와 일상생활관련 서비스(1.89점)에 대한 필요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문화여가관련 서비스(1.66점)에 대한 필요도는 낮게 나타났다. 노인들이 건강관리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관심 및 요구도가 높게 나타난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2), 김민희와 김성희(2012)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농촌 노인들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이를 지지해주고 뒷받침해줄 수 있는 의료서

비스가 농촌이라는 지역적 특성상 턱없이 부족하므로, 전술한 바와 같이 재가서비스 및 노인복지관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생활서비스 필요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자녀관련변수(자녀와의 연락빈도, 동거자녀 유무, 자녀에게 준 사회적지지), 친구/이웃관련변수(친구/이웃으로부터 받는 사회적지지, 친구/이웃의 왕래빈도), 지역사회관련변수(재가서비스, 경로당 이용경험 여부)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 생활서비스 필요도와 사회관계망은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섯째, 자녀동거유무에 따라서 생활서비스 필요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동거가구의 경우, 분가한 자녀와의 연락빈도, 자녀에게 준 사회적지지, 재가서비스 이용경험 여부가, 자녀비동거 가구의 경우, 분가한 자녀와의 연락빈도, 자녀와 주고받는 사회적지지, 친구/이웃과의 왕래빈도와 주고받는 사회적지지, 재가서비스 이용경험 여부가 생활서비스 필요도에 영향을 미쳤다.

자녀와 동거하지 않을수록 생활서비스에 대한 필요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 서비스의 이용가능성이 높다고 한 이가옥과 이미진(2001), 강유진과 강효진(2005)의 연구결과와 상반되었으며, 혼자 사는 노인이 복지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한 이혜원(1995), Burnette & Mui(1995), 조성희(2003), 박경숙(2003), 이인정(2004), 백학영과 윤민석(2007)의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하였다.

농촌 노인들은 ‘혼자 가사노동을 하기 힘들어서’, ‘몸이 안 좋아서 돌봐줄 사람이 필요해서’가 각각 29.2%, 16.9%로 부양/돌봄이 필요해서 자녀와 동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영숙과 이금옥(2005)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 절반이 ‘건강이 어려워지면 자녀와 살고 싶다’고 답하여 노인들이 여전히 자녀에게 의지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발

견하였다(신영숙·이금옥, 2005; 정순돌·문진영·김성원, 2010에서 재인용). 자녀동거 가구의 경우 친구/이웃과의 관계는 생활서비스 필요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 자녀와의 관계, 재가서비스는 생활서비스 필요도에 영향을 미쳤다. 이는 아직까지도 자녀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동거하는 자녀에게서 필요로 하는 부양/돌봄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생활서비스에 대한 필요도가 낮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자녀가 직장(학업) 관계로 타지역에 있어서’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농촌 노인들이 65.2%로, 이들은 자녀의 사정상 어쩔 수 없이 자녀와 동거하지 않았다. 이들도 부양이나 돌봄을 필요로 하나, 생활서비스를 자녀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지 않았기 때문에 생활서비스에 대한 필요도가 높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녀비동거 가구의 경우는 자녀동거 가구와는 달리 자녀뿐만 아니라 친구/이웃의 관계, 재가서비스가 생활서비스 필요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자녀비동거 가구의 경우는 포괄적인 사회관계망이 중요함을 의미하므로, 자녀뿐만 아니라 친구/이웃, 지역사회의 사회적지지를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일본은 지역포괄센터를 두어 보건부, 복지사무소의 케이스워크 및 홈 헬퍼가 일정지역을 담당하여 가장 적절한 서비스를 선정(사정, 케어플랜의 작성 등)하고, 노인이 속한 가족을 지지하며, 서비스 제공기관으로의 중계역할을 하고 있어, 노인들이 익숙해진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난탄시 홈페이지), 경북 안동에서는 은빛도우미 서비스라고 하여 노인들에게 자원봉사로서 말벗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들을 통합적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재가서비스 이용여부는 자녀동거 가구뿐만 아니라 자녀비동거 가구에서도 생활서비스 필요도에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졌다. 이는 농촌 노

인들에게 재가서비스가 시사하는 바가 큰 것을 의미하므로, 농촌 노인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홍보하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이용절차를 간소화하고, 이용부담을 줄이는 등 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하루빨리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위영역별 생활서비스 필요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살펴보면, 분가한 자녀와의 연락빈도는 대체적으로 모든 생활서비스 필요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가한 자녀와의 연락빈도를 제외한 다른 변수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위생/건강관련 서비스는 재가서비스 이용경험 여부가, 문화여가관련 서비스는 경로당 이용경험 여부가, 일상생활과 상담관련 서비스는 친구/이웃의 왕래빈도와 그들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가 다른 변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재가서비스 자체가 건강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이므로 위생/건강관련 서비스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경로당은 농촌에서 노인들이 모이는 담화 장소로서 이용되는 것으로 문화여가관련 서비스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친구/이웃의 왕래빈도가 적을수록, 친구/이웃으로부터 받는 사회적지지가 많을수록 일상생활과 상담관련 서비스의 필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친구/이웃의 왕래빈도가 적다는 것은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 고립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노인들이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과 상담관련 서비스의 필요도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친구/이웃으로부터 받는 사회적지지가 많을수록 일상생활과 상담관련 서비스의 필요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노인들의 건강이 그만큼 좋지 않아서 친구/이웃으로부터 받는 사회적지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전문적인 생활서비스를 필요로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분명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건강요인을 추가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가족, 친구/이웃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사회관계망을 다루었다는 점, 생활서비스 필요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자녀동거 유무뿐만 아니라 하위영역별 생활서비스에 따라서 세분화하여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으나, 노인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생활서비스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이 있다.

【참 고 문 헌】

- 1) 강유진·강효진(2005). 노인복지서비스 인지도 및 이용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998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28, 255-294.
- 2) 강은나·김혜진·정병오(2015). 후기 노년기 사회적 관계망 유형과 우울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46(2), 229-255.
- 3) 김동배·유병선(2013). 근린환경과 노인의 사회적 관계, 우울에 관한 연구: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33(1), 105-123.
- 4) 김민희·김성희(2012). 섬 지역 노인의 생활실태와 복지서비스 욕구. 한국도서연구, 24(1), 95-117.
- 5) 김수현·강현정·김윤정(2008). 농어촌 여성 독거노인의 사회적 관계망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3(3), 51-71.
- 6) 김수현·강현정·김윤정(2008). 농어촌 여성 독거노인의 사회적 관계망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3(3), 51-71.
- 7) 김영범·박준식(2004). 한국노인의 가족관계망과 삶의 만족도: 서울 지역 노인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4(1), 169-185.
- 8) 난탄시청 홈페이지. <http://www.city.nantan.kyoto.jp/www/index.html>.
- 9) 남기민(2006). 고령화사회와 노인복지. 서울: 양서원.
- 10) 문성제·손민성·윤희수·최만규(2017). 주관적 건강수준에 따른 독거노인의 사회적 관계망과 의료기관 이용 간의 관련성: 노인복지서비스 참여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5), 479-490.
- 11) 민기채·이정화(2008). 비공식적 관계망에 대한 지원 제공이 노인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 성차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8(3), 515-533.
- 12) 박경숙(2003). 노인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실태와 이용경향에 미치는 요인: 경기도 국민기초생활보장노인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5, 283-307.
- 13) 박미석(2005). 우리나라 노인복지서비스 기반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노후생활준비와 노인복지서비스 요구도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4), 1-15.
- 14) 박영란·박경순(2013). 한국노인의 사회적 관계망과 복지: 연구의 동향과 향후 과제. 노인복지연구, 60, 323-352.
- 15) 백옥미(2011). 지역사회 재가 노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결정요인: 앤더슨모델의 적용.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38, 1-27.
- 16) 백학영·윤민석(2007). 서비스 접근성이 노인의 복지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회 2007년도 학술대회 자료집, 10, 219-225.
- 17) 백학영·윤민석(2007). 서비스 접근성이 노인의 복지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사회복지학회 2007년도 세계학술대회, 10, 219-225.
- 18) 서선희·임희경(2004). 농촌 노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망의 기능에 관한 연구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농촌사회, 14(1), 179-203.
- 19) 석재은·장은진(2016). 여성독거노인과 남성독거노인의 관계자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

- 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71(2), 321-349.
- 20) 오인근·오영삼·김명일(2009). 여성노인의 사회적 관계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연구: 건강증진행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4(1), 113-136.
 - 21) 윤현숙(2001). 노인 가족부양자의 재가복지서비스 이용의향 및 필요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 21(2), 141-161.
 - 22) 이가옥·이미진(2001). 노인의 재가복지서비스 이용의향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한국노년학, 21(2), 113-124.
 - 23) 이미애(2005). 장기요양보호 대상 노인의 시설 이용의사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27, 29-47.
 - 24) 이미영·조희금·최윤지(2016). 농촌독거노인의 생활안전서비스지원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20(1), 43-60.
 - 25) 이민아(2004).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작업흐름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6), 91-105.
 - 26) 이인정(2004). 만성질환 및 기능손상 노인 가족수발자의 재가복지서비스 이용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6(3), 183-205.
 - 27) 이재모·이신영(2006). 노인의 재가복지서비스 이용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대구광역시 거주 노인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32, 203-222.
 - 28) 이정화·한경혜(2003). 농촌노인의 일과 여가활동이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농촌사회, 13(1), 209-238.
 - 29) 이혜원(1995). 서울시 거택보호노인의 가정봉사원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 15(2), 140-156.
 - 30) 임소영·강민아·조성일(2013). 한국 노인의 사회관계망 유형과 건강상태의 관계: 남녀집단별 분석. 노인복지연구, 59, 281-308.
 - 31) 장영은·김신열(2014). 자녀와의 사회적 관계망 특성이 노인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39, 1-29.
 - 32) 정경희(1995). 노인들의 사회적 연계망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5(2), 52-68.
 - 33) 정순돌·문진영·김성원(2010). 고령은퇴자의 사회적 관계망과 은퇴만족도 관계 연구. 한국노년학, 30(4), 1145-1161.
 - 34) 조성희(2003). 방문간호대상노인의 가족자원 특성과 서비스 이용실태에 대한 분석: 충남 아산지역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2, 155-178.
 - 35) 최성수·이가람·이성민(2008). 사회적 연결망과 은퇴 경험이 한국 중고령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28(2), 291-307.
 - 36) 최용민·이상주(2003). 사회적 지원망이 독거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22, 193-217.
 - 37) 최정아·서병숙(1992). 도시노인의 사회적 지원망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2(1), 65-78.
 - 38)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2). 2011년 노인실태조사. 서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39)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년 노인실태조사. 서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40)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08). 고령화사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서비스 개선방안. 서울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41) 宮本太郎 編(2014). 地域包括ケアと生活保障の再編—新しい「支え合い」システムを創る. 東京: 明石書店.
 - 42) Brunette, D. & Mui, A. C.(1995). In-home and Community-based Service Utilization by Three Group of Elderly Hispanics: A National Perspective. Social Work Research, 19(4), 197-206.
 - 43) Hoyt, D. & Babchuk, N.(1983). Adult Kinship Networks: the Selective Formation of Intimate Ties with Kin. Social Forces, 62(1), 84-101.

- 44) Kraut, J. A.(1983). Correlates of Senior center Participation. *Research on Aging*, 5(3), 339-353.
- 45) Logan, J. R. & Spitze, G.(1994). Informal Support and the Use of Formal Services by Older Americans. *Journal of Gerontology*, 49(1), 25-34.

- 46) Ron, P.(2009). Seeking help from health and welfare services among, elderly single women. *Journal of Women & Aging*, 21, 279-292.

- 투 고 일 : 2017년 5월 30일
- 심 사 일 : 2017년 6월 26일
- 게재 확정일 : 2017년 7월 17일